

# 행촌 이암의 태백진훈(太白眞訓)에 나타나는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해석

방건웅<sup>1</sup>

1.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gwbahng3208@daum.net>

## 초록

고려 말 공민왕 때 문하시중이었던 행촌(杏村) 이암(李嶽)은 <단군세기>, <농상집요>, <태백진훈>의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저술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근대에 들어서이기 때문에 그 전수과정에는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술에 실려 있는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유교적 관점과는 다른 사상적 체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기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삼국유사>에 보면 최치원이 남겼다고 하는 <난랑비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나라에 유불도(儒佛道) 3교를 모두 포함하는 현묘지도(玄妙之道), 즉 풍류(風流)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불행히도 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선도(仙道)의 기풍으로 알려져 있는 풍류의 기본 사상이 유불도 3교의 가르침을 모두 아우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백진훈>에 실려 있는 내용은 풍류의 기본 철학과 함께 선도의 관점에서 본 이기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주자학에서는 이(理)와 기(氣)에 집중하여 사상체계를 논하고 있으나 <태백진훈>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기(機)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간의 관계는 이(理)와 기(氣)의 사이에 기(機)가 있다는 말로 요약이 된다. 또한 이암은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이(理)는 허(虛)하고 기(氣)는 조(粗)하며, 이들은 허조동체(虛粗同體)로서 기(機)를 이룬다고 함으로써 근대 유기체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적(動的)세계관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작동되고 있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에너지를 나눌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를 일체삼용(一體三用)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현묘지도에서 현은 1로서 체(體)에 해당하고, 묘는 3으로서 용(用)에 해당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도에서 말하는 이(理)와 기(氣)의 관계는 주자학에서처럼 이(理)가 우선이라거나 기(氣)가 우선이라는 관점, 혹은 일원론이나 이원론이라는 사변적인 관점보다도 실용적인 우주 변화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등하게 작용하는 관계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 1. 머릿말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이기일원론과 이기이원론을 두고 긴 세월동안 논쟁을 벌인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sup>1</sup> 논쟁의 중심은 이(理)와 기(氣)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적 논지가 달라진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친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sup>2</sup>

기(氣)는 성리학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쓰여온 단어이며 동양권에서는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였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거의 모든 철학서와 의서에 등장한다. 그만큼 기(氣)는 쓰이는 분야와 저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 고려말의 행촌 이암(1297-1346)이 쓴 <태백진훈>에서도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태백진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이기론과는 매우 다른 개념으로 이(理)와 기(氣)를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물의 생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와 기의 이원론적 관점이 아니라 이(理), 기(氣), 기(機)의 세 요소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관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는 허(虛)하고 기(氣)는 조(粗)하며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 허조동체(虛粗同體)가 되면서 살아 있는 기(機)를 이룬다는 주장은 체(體)와 용(用)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특히 위 세 요소들이 체와 용의 관계를 이루어 작용한다는 관점은 최치원(857-908 이후)이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기술한 “현묘지도(玄妙之道)”와도 연관이 된다. 그 실마리는 <태백진훈>에서 현(玄)은 하나로서 체(體)이고 묘(妙)는 셋으로서 용(用)이라고 설명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행촌 이암이 남긴 글은 선도의 사상체계, 즉 풍류를 이해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체용의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은 근대 유기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동적(動的) 세계관과도 유사한 측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2. 본론

### 2.1. 일(一)과 삼(三)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삼(三)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하면서 친근하게 여겨왔다. 아이를 낳을 때도 삼신할미가 점지하여 주었다고 하였고,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도 역시 셋이며, 최근에 발굴된 고구려의 고분에 그려져 있는 삼족오(三足烏)에서도 발이 셋

---

<sup>1</sup>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A%B8%B0%EB%A1%A0>, 위키백과 (이기론)

<sup>2</sup>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38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기론)

달려 있다.

삼(三)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삼신(三神)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삼신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sup>3</sup> 오늘날에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생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태백일사>나 <태백진훈>을 보면 삼신은 조화(造化)의 신, 교화(教化)의 신, 치화(治化)의 신으로서 우주 만물의 창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얼핏보기에는 삼신이라고 하는 세 신이 각기 따로 있어 사람과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일십당 이맥(1455-1528)이 <태백일사>에서 삼일신고를 설명한 글과 삼신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보면 사람과 만물이 삼신에게서 같이 나왔다고 하였다.

“상고하건데 무릇 삼신은 천일(天一)이요, 지일(地一)이요, 태일(太一)이다. 천일은 조화(造化)를 주관하고 지일은 교화(教化)를 주관하고 태일은 치화(治化)를 주관한다.”<sup>4</sup>

... 그 오(五)에서는 이르기를 사람[人]과 사물(物)이 삼신(三神)에서 같이 나왔는데 하나의 참으로[眞] 돌아가는 것 이것이 대아(大我)라고 하였다.<sup>5</sup>

“무릇 삼신은 영구한 생명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삼신에게서 나왔으며 삼신을 한 근원[一源]의 조상이라고 하였다.”<sup>6</sup>

그러나 그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면 삼신이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측면이 셋이기 때문에 삼신이라 한 것이지 그 주체는 하나라는 설명을 <태백일사>의 다른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표훈천사에 이르기를 『한 처음에 상하사방은 일찍이 볼 수 없는 암흑이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의 빛이 밝았다. 상계(上界)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니 삼신이 있었는데 곧 일상제(一上帝)이었다. 주체(主體)이므로 일신(一神)이고 각기 따로

---

<sup>3</sup> <http://folkency.nfm.go.kr/kr/topic/%EC%82%BC%EC%8B%A0/2291>,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삼신)

<sup>4</sup> “稽夫三神 曰天一 曰地一 曰太一 天一主造化 地一主教化 太一主治化”,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22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5</sup> 환단고기, 김은수역, 201쪽, 가나출판사, 서울(1985)

<sup>6</sup> “三神者永久生命之根本也 故曰人物同出於三神 以三神爲一源之祖也”,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28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작용이 곧 삼신(三神)이다. 삼신이 있어 만물을 끌어내고 천 세계의 무량한 지능을 통치한다.<sup>7</sup>

여기에서 일신(一神)과 삼신(三神)은 같은 주체이며 다만 작용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삼신이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신이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일 뿐이며 다만 셋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내용을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하나 주체는 곧 일상제(一上帝)이시며 각기 신(神)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작용이 삼신인 것이다.<sup>8</sup>

위에서도 일신(一神)이 주체이고 삼신(三神)은 그 작용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암이 <태백진훈>에서 주체는 하나이며 신(神)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것이 삼신(三神)이라 한 것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sup>9</sup> 이암은 또한 한 몸으로 상제라 함은 신의 주체[體]를 말하고 한 몸으로 삼신이라 함은 신의 작용[用]을 말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함으로써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sup>10</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삼신은 곧 조교치(造敎治)이자 천, 지, 인을 뜻하며 이들은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삼(三)은 일체삼용(一體三用)의 말에서 보듯이 한 몸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니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기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주체는 일신이다.

## 2.2. 체(體)와 용(用)

이제 삼신과 일신의 개념을 파악하였으므로 보다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삼신일체(三神一體), 혹은 일체삼용(一體三用)이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데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본기에 보면 아래에서

---

<sup>7</sup> “表訓天詞云 大始 上下四方 曾未見 暗黑 古往今來 只一光明矣 自上界却 有三神卽一上帝 主體則爲一神 非各有神也 作用則三神也 三神有引出萬物 統治全世界之無量智能”,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21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8</sup> “然主體則爲一上帝 非各有神也 作用則三神也”,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25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9</sup> “主體爲一 非各有神 作用三神”, 대배달민족사, 3권, 242쪽, 고려가, 서울 (1987).

<sup>10</sup> “一體上帝者 是爲神之主體也 一體三神者 是爲神之作用也”, 대배달민족사, 3권, 253쪽, 고려가, 서울 (1987).

보듯이 삼신일체는 만물의 원리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원리에 따라 덕, 혜, 력이 있어 세상에 만물이 가득차고 현묘(玄妙)하여 운행(運行)을 한다고 하였다.

크도다 삼신일체(三神一體)가 만물의 원리(原理)가 됨이여! 만물의 원리는 덕(德)이 되고 지혜[慧]가 되고 힘[力]이 되는구나. 높고도 넓어서 세상에 가득 차는구나! 현묘하여 불가사의한 것이 운행(運行)이구나! ... 유원(惟元)의 기(氣)와 지묘(至妙)의 신(神)은 스스로 집일함삼(執一含三)의 충실한 광휘가 있는 것이다.<sup>11</sup>

위의 구절에서 운행(運行)이라 함은 기(氣)를 돌려서[氣運] 움직임[行]이 있게 하는 것이니 곧 만물은 정(靜)이 아니라 동(動)적 존재로서 움직이는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묘하여 불가사의한 것이다.

유원(惟元)의 기(氣)는 오직 으뜸일 뿐인 기, 즉 근원인 일기(一氣)를 뜻하고 또한 하나이므로 현(玄)을 의미한다. 지묘(至妙)의 신(神)은 지극히 묘한 신을 가리키는 것이니 묘(妙)는 삼신(三神)의 작용을 뜻한다. 이것을 하나를 잡으면 셋이 포함되어 있다는 집일함삼(執一含三)으로 표현한 것이니 일체삼용(一體三用)과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셋이 같이 작용하여 만물이 살아있는 상태가 됨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구절을 더 찾아 볼 수 있다.

“셋이 하나임은 그 체이고[三一其體] 하나가 셋임은 그 쓰임이다[一三其用]”<sup>12</sup>

여기에서는 체(體)와 용(用)의 개념으로 일과 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체는 하나이며 쓰임새는 셋이라는 위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일체삼용(一體三用)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체용무기(體用無岐)라고 함으로써 체와 용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3</sup> 같은 소도경전본훈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는 집일함삼(執一含三)하는 이유와 회삼귀일(會三歸一)하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 집일함삼(執一含三)하는 까닭은 곧 일(一)이 그 기(氣)이고 삼(三)이 그 신(神)이기 때문이다. 회삼귀일(會三歸一)하는 까닭은 이 또한 신(神)이 삼(三)이 되고 기(氣)가 일(一)이 되기 때문이다. 무릇 살아 있는 자의 체(體)는 이 일기(一氣)이다. 일기(一氣)의 안에 삼신(三神)이 있다. 지혜의 근원도 또한 삼신(三神)에 있다. 삼신(三神)의 밖을 일기(一氣)가 싸고 있다. 그 밖에 있는 것이 일(一)이며, 안에 있는 것이

<sup>11</sup>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22 ~ 123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12</sup> “三一其體 一三其用”,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9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13</sup> “體用無岐”, 환단고기, 김은수 역, 19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이 일(一)이며, 그 통제도 일(一)인데 역시 모두 포함되어 모여 있으니 갈라지지 않는다. . . .<sup>14</sup>

위의 글에서도 체(體)는 곧 일기(一氣)이며 용(用)은 삼신(三神)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에 있는 삼신(三神)은 하나(一)”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로서 체는 하나이지만 용은 셋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들은 갈라질 수 없다. 작동하는 컴퓨터에서 무른모, 굳은모, 전기를 나눌 수 없는 것과 같다. 음악을 연주하는 상황에 비유한다면 악보, 악기, 그리고 연주자를 나눌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바다의 물결이 생기는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바다의 물이 고요할 때는 표면에 아무런 물결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체로서 있을 뿐이나 바람이 불면 표면에 물결이 일게 된다. 바람은 기압골의 차이라는 원리[理]에 따라 불면서[氣] 표면에 물결 무늬를 만들어내니 출렁거리는 물결이 기(機)가 된다. 그러나 그 근본인 물 자체는 일기(一氣)로서 체(體)이며 변함이 없다. 세상 만물은 이 물결과 같은 존재로서 일기가 움직이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 2.3. 허조동체(虛粗同體)와 기(機)

삼신의 직용 기제, 즉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과정인 용(用)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허조동체이다. 이암은 <태백진훈>에서 허조(虛粗)에 대해 설명하기를 “허(虛)와 조(粗)가 합하여 허조동체(虛粗同體)가 되면서 사람과 만물이 생겨난다”고 하였다.<sup>15</sup> 또한 이를 반대로 표현하기를 존재하는 만물은 허조동체라고도 하였다.<sup>16</sup> 을파소(?-203)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다물흥방지가”에서는 허(虛)는 보이지 않는 신(神)과 같고, 조(粗)는 거칠은 것이니 물(物)과 같아서 허조동체를 유신(惟神)과 유물(惟物)이 둘이 아닌 것이라고도 표현하였다.<sup>17</sup> 이를 행춘 이암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도(道)가 생기고, 허와 조가 나누어지면 도(道)와 분리된다고 설명하였다.<sup>18</sup> 다른 곳에서는 허와 조가 나누어지면 도(道)가 폐한다고도 하였다.<sup>19</sup>

이암은 계속하여 허와 조의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허(虛)는 나지도 않

---

<sup>14</sup> “所以執一含三者 乃一其氣而三其神也 所以會三歸一者 是亦神爲三而氣爲一也 夫爲生也者之體是一氣也 一氣者內有三神也 智之源亦在三神也 三神者外包一氣也 其外在也一 其內容也一 其統制也一 亦皆含會而不岐焉”,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20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15</sup> “虛粗同其體而人物始生焉耳”, 대배달민족사, 3권, 253쪽, 고려가, 서울(1987).

<sup>16</sup> “虛粗同體者惟一氣而已惟三神而已.”, 환단고기, 김은수 역, 152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17</sup> “故其虛其粗是同卽本 故惟神惟物不二”, 환단고기, 김은수역, 243쪽, 가나출판사, 서울(1985).

<sup>18</sup> “天地一而道生 虛粗分而道離”, 대배달민족사, 3 권, 240 쪽, 고려가, 서울(1987)

<sup>19</sup> “天地一而道存 虛粗分而道廢”, 대배달민족사, 3 권, 251 쪽, 고려가, 서울(1987)

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을 말하며, 조(粗)는 능히 생기고 없어지며 능히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sup>20</sup> 또한 “이(理) 하나는 허(虛)이고, 기(氣) 하나는 조(粗)이다. 동체(同體)가 고동[機]을 이끄니 묘하고 또 묘하다”라고 설명함으로써 허(虛)는 이(理)를 말하고 조(粗)는 기(氣)를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면서 동체가 되어 기(機)를 이끈다고 하였다.<sup>21</sup> 여기에서 허조동체가 되면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기(機)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기(機)의 의미는 고동치는 것을 말하며 기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理)와 기(氣)가 하나되어 움직일 때 가능하게 된다. 기계(機械)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장치를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고동[機]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나 만물이나 모두 살아 있는 동적인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적 세계관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유기체철학과 매우 유사한 세계관을 발견하게 된다.

이(理), 기(氣), 기(機)를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이(理)는 무른모이고, 기(氣)는 전기에너지이며, 기(機)는 굳은모가 된다. 이 셋이 같이 어우러짐으로 하여 컴퓨터는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비유하자면 무른모(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굳은모(하드웨어)에 전기에너지가 통하면서 컴퓨터가 작동하게 되듯이 이(理)와 기(氣)가 하나가 되면서 살아 움직이고 고동[機]치는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들 간의 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체에 비유한다면 사람의 마음[心]은 이(理)로서 텅 비었으니 생멸증감(生滅增減)이 없어 허(虛)이고, 기(氣)는 흐름에 의한 생멸증감이 있어 거칠음이 일게 되니 조(粗)이며, 몸(身)은 이 둘이 같이 있음으로 하여 체(體)로서 살아 움직이게 되니 허조동체(虛粗同體)인 것이다. 신(身)은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의 굳은모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나 신체(身體)는 굳은모와 무른모, 그리고 전기에너지가 하나 되어 작동하는 컴퓨터와 같이 살아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몸은 신체(身體)이고 죽은 사람의 몸은 시신(屍身)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물을 물체(物體)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같아서 사물도 살아 있는 변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 및 존재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허조동체인 것이다. 체(體)이기 때문에 신체(身體)이고 물체(物體)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생명체는 이러한 과정을 생명현상으로, 그리고 무생명체는 시간에 따른 변화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심(心), 기(氣), 신(身)을 고루 갖추어야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며, 기(氣)가 거의 없어진 사람은 식물인간

<sup>20</sup> “所謂虛者不生不滅之爲也 虛者不增不減之爲也 粗者能生能滅之爲也 粗者能增能減之爲也”, 대배달 민족사, 3 권, 253 쪽, 고려가, 서울(1987)

<sup>21</sup> “理一也 虛 氣一也 粗 同體引機 妙之于妙”, 대배달 민족사, 3 권, 250 쪽, 고려가, 서울(1987)

이고, 몸이 없으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심(心)은 무른모와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컴퓨터의 굳은모에 전기를 연결하여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氣)는 전기에 너지로서 이것이 없이는 컴퓨터의 구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身)은 굳은모로서 심(心)에 해당하는 무른모와 기(氣)에 해당하는 전기가 같이 공급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가 되며 이것이 허조동체이다.

허조동체가 드러나는 과정은 자기 유사성을 갖는 자기닮음 도형(프랙탈 이론)처럼 차원마다 단계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이, 기가 같이 결합하여 상호 작용하면서 세포라는 생명체의 기본요소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다음에는 살아 있는 세포라는 기틀[機]에 의지하여 세포차원의 이와 기가 작용하여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상위차원의 기(機)인 장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단계적으로 몸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허와 조가 결합하여 허조동체를 만드는 일체삼용의 작용은 끊이지 않고 차원을 바꾸어가면서 진행되어 인체가 이루어지고 만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인체는 기운[氣]이 이(理)에 따라 계속 흐르면서 고동[機], 즉 생명을 유지한다. 다시 말하여 인체 차원의 이(理)와 기(氣)가 몸[身]과 허조동체가 되면서 몸이 살아있게 되어 신체의 생명현상이 유지된다. 이렇게 하여 도(道)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기, 기의 3 가지 요소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그 역할을 구별하여 생각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이들을 따로따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동하는 컴퓨터에서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낼 수 있겠는가?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허조동체이며 허와 조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태백일사>에서 이맥이 일기(一氣)의 안에 삼신(三神)이 있고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나눌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sup>22</sup> 세 요소가 완전히 융합되어 서로 협력하면서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현상을 두고 하나를 잡으면 셋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한 것이 집일함삼(執一含三)이며 또한 한 몸으로서 셋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일체삼용(一體三用)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체(體)와 용(用)은 갈라짐이 없다[體用無岐]고 한 것도 같은 내용으로서 사람과 만물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임을 뜻한다. 이를 이암은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를 허와 조가 갈라지면 도가 폐한다고 하였다.<sup>19</sup>

## 2.4. 현묘지도와 풍류

---

<sup>22</sup> “所以執一含三者 乃一其氣而三其神也 所以 會三歸一者是亦神爲三而氣爲一也 夫爲生也者之體是一氣也 一氣者內有三神也 智之源亦在三神也 三神者外包一氣也 其外在也 一其內容也 一其統制也 一亦皆會會而不岐焉” 환단고기, 김은수 역, 20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삼국사기에 보면 최치원이 쓴 난랑비서(鸞郎碑序)가 적혀 있다. 난랑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화랑을 봉황의 일종인 난새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 글은 말하자면 화랑을 기리는 비문의 머리글인 셈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나라에 풍류(風流)라 부르는 현묘의 도가 있으니 유교, 도교, 불교의 삼교(三敎)가 포함되어 있는 선도(仙道)의 바탕이라 하였다. 풍류(風流)는 요즘 잘못 인식되어 멋들어지게 노니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쓰이고 있으나 그 본 뜻은 '바람 흐르는 대로'이니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을 말한다. 풍류도는 바람 따라 흘러가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고 배우는 것이다. 이로부터 현묘의 도(道), 혹은 풍류도는 선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화랑도의 근본 원리임을 알 수 있다.

최치원 난랑비서에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이는 가르침을 세운 근원으로서 선가(仙家)의 사서(史書)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실질적으로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있으니 모든 생명들을 가까이하여 교화한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서면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니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고, 일을 함에 있어 억지로 함이 없고 가르침을 말없이 실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가르침이며,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축건태자의 교화이다.<sup>23</sup>

위 글의 원문에 나오는 노사구(魯司寇)는 공자(BC551-BC479)가 노나라의 사구라는 벼슬을 맡은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공자를 가리키며, 주주사(周柱史)는 주나라의 주하사(柱下史)벼슬의 약칭으로서 도가(道家)에 속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축건태자(竺乾太子)는 축이 천축국을 뜻하고 건은 가비라성(迦毘羅城)의 다른 표기의 약칭으로 추정되므로 석가모니(BC624?-BC544?)를 가리킨다. 이것은 현묘지도(玄妙之道)가 유불도(儒佛道)의 삼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4</sup> 따라서 현묘지도를 이해하게 된다면 풍류의 기본 사상 내지는 선도의 세계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2.5. 현묘지도와 선(仙) 사상

지금까지 살펴 본 체용 및 허조동체의 개념과 최치원이 <난랑비서>에서 말한 “현묘지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현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sup>23</sup> “崔致遠 鸞郎碑序 曰 國有玄妙之道 曰 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삼국사기> 김부식, 권 제4, 신라본기 제4, 24쪽, 진흥왕 37년조

<sup>24</sup> 송호수, 한민족의 뿌리사상, 126~128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4)

데 여기에서도 이암의 글이 도움이 된다. 이암은 체와 용을 현(玄)과 묘(妙)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신의 마음[心], 기운[氣], 몸[身]의 속성인 허(虛), 명(明), 건(健)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일체(一體)를 현(玄)이라 하였고, 반대로 이러한 속성이 삼신으로 분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묘(妙)라 하였다. 다시 말하여 삼일기체(三一其體), 즉 셋이 하나로 있는 그 체(體)가 현(玄)이고 일삼기용(一三其用), 즉 하나가 셋으로 작용하는 것이 묘(妙)이다. 묘(妙)는 파자(破字)하여 해석하면 현(玄)과 소(少)가 합쳐진 형상이니 현(玄)이 작게 갈라지는 것이다.

. . . 비어서 빈 바가 없고, 밝아서 밝은 바가 없고, 굳세어서 굳센 바가 없는 것으로 삼신일체의 무기[無機]와 더불어 한 몸[同體]인 것을 현(玄)이라 한다. 빈 바가 없으면서 비었고, 밝은 바가 없으면서 밝고, 굳센 바가 없으면서 굳세어서 능히 스스로의 신(神)으로 화(化)하여 선(善)이 되어 아름다움이 완전한 것을 묘(妙)라 한다. 이 일체삼신(一體三神)은 능히 천하만세에 통하는 것이다. . .<sup>25</sup>

위의 글에서 비어서[虛] 빈 바가 없고 밝아서[明] 밝은 바가 없고 굳세어서[健] 굳센 바가 없다 함은 비어서 빈 바가 더 이상 없고 밝아서 더 이상 밝은 바가 없으며 굳세어서 더 이상 굳센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완전히 비었고 더 이상 밝을 수가 없도록 밝으며 굳센 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굳셀 수가 없는 정도임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허, 명, 건이다. 삼신일체의 무기(無機)는 삼신이 한 몸으로 있으면서 아직 기틀이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묘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허, 명, 건의 속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기틀(機)이 없이 일체로 있는 것이 현(玄)이다. 그 반대로 비고 밝고 굳센 속성이 드러나 능히 스스로 화하여 완전하게 아름다운 것이 묘(妙)이다. <단군세기>에서도 신의 작용을 묘(妙)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 . . 신(神)은 능히 만물을 끌어내어 각기 그 성(性)을 온전하게 하니 신의 묘(妙)한 바이며. . .<sup>26</sup>

현묘의 도(道)에 대한 구절을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본기와 대진국본기에서도 찾아

<sup>25</sup> “虛焉而無所虛 明焉而無所明 健焉而無所健者 與三神一體之無機 爲同體者曰 玄 無所虛而虛焉 無所明而明焉 無所健而健焉 能自神而化之爲善美完全者曰 妙 此一體三神之爲能通於天下萬世者也”, <태백진훈> 대배달민족사, 3권, 254쪽, 고려가, 서울 (1987).

<sup>26</sup> “神者 能引出萬物 各全其性 神之所妙 民皆依恃也”, <단군세기> 환단고기, 김은수 역, 5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볼 수 있다. 이 글을 보면 현묘의 도에 대한 가르침은 단군 조선 이전부터 시작하여 발해인 대진국(大震國) 때까지도 제대로 전수되었으나 고려 때부터 흐려지면서 조선에 들어서 완전히 맥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구절들은 현묘의 도와 관련이 있는 구절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삼신은 하늘을 낳아 만물을 만들었고, 환인은 사람을 가르쳐 의(義)를 세웠다. 이로부터 자손들은 서로 전하여 현묘의 도를 얻으니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렸다...<sup>27</sup>

단군께서는 바르게 손을 맞잡고 좌정(坐定)하여 세계 현묘(玄妙)의 도(道)를 깨우쳤으며 못 백성들을 직접 교화(教化)하였다.<sup>28</sup>

... 태학을 세워 천경과 신고를 가르치고 환단의 고사를 강(講)하였다.... 태백 현묘의 도는 백성을 적시고 홍익인간의 교화는 만방에 힘 있게 퍼졌다.<sup>29</sup>

아래의 글은 신시(神市) 시대의 선인(仙人) 발귀리(發貴理)가 지은 송(頌)이다. 현(玄)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있기도 없기도 한 것이라 함으로서 유무(有無)의 상대성 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극성화 이전의 절대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혼(混)이라 하였다. 묘(妙)는 극성화가 일어나 허(虛)와 조(粗)로 나누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삼일은 그 체(體)이고 일삼은 그 용(用)인 것이다. 따라서 혼(混)과 묘(妙)는 하나의 고리요[混妙一環] 체(體)와 용(用)은 갈라짐이 없는 것이다.<sup>30</sup>

대일(大一)의 그 극(極)은 이름하여 양기(良氣)이다. 없고[無] 있고[有] 하여 혼(混)하고 비이고(虛) 거칠고(粗) 하여 묘(妙)하니 삼일(三一)은 그 체(體)이고 일삼(一三)은 그 용(用)이다. 혼(混)과 묘(妙)는 하나의 고리요 체(體)와 용(用)은 갈라짐이 없다. 대허(大虛)에 빛이 있으니 이것이 신의 형상이다. 대기(大氣)가 오래 있으니 이것이 신의 화(化)함이다.<sup>31</sup>

---

<sup>27</sup> "窺想三神生天造物 桓仁教人立義 自是子孫相傳 玄妙得道 光明理世 既有天地人三極 大圓一之爲庶物原義 則天下九桓之禮樂豈不在於三神古祭之俗乎",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2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28</sup> <삼성기 전 상편> 환단고기, 김은수 역, 22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29</sup>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256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30</sup> "混妙一環 體用無岐", 환단고기, 김은수 역, 19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31</sup>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9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현묘지도나 체용, 허조동체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말만 달리하여 일체삼용, 회삼귀일, 집일함삼, 체용무기 등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참고로 노자(BC6세기-BC5세기) 도덕경 제1장에 보면 “玄之又玄 衆妙之門”이라 하여 현과 묘에 대한 글귀가 나온다.<sup>32</sup> 이 내용은 현(玄)속에 현(玄)이 계속되는 방식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묘(妙)함의 문이란 뜻으로서 차원을 달리하면서 계속하여 기(機)가 확장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 개념은 개일(個一)과 전일(全一)의 관계처럼 프랙탈과 비슷한 개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2.6. 선 사상의 이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묘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선(仙) 사상에서는 우주만물이 일기(一氣)에서 일어나며 그 움직임은 이(理), 기(氣), 기(機)의 셋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진다고 하다. 일기(一氣)는 본디 비었으면서[虛] 극성이 없는 것이며[無極] 삼신의 작용을 통하여 만물의 형상이 드러나니 태극(太極)이라 하였다. 이(理)와 기(氣), 즉 허(虛)와 조(粗)가 합쳐지면서 허조동체가 생성되니[機] 이것이 만물이 생성되어 움직이는 근원이 되고 원리가 된다. 이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셋으로 함께 작동하는 데 있으므로 태극(太極)은 그 움직임을 나타낸다. 태일(太一)은 곧 인일(人一), 즉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삼극이 같이 어우러져 움직이는 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태극(太極)은 우주의 움직이는 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무극(無極)은 일기(一氣)를 가리키고 반극(反極)은 극성화의 과정을, 그리고 태극(太極)은 허조동체(虛粗同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태백일사>에 실려 있는 구절, 즉“원은 일(一)이요 무극(無極)이며, 방(方)은 이(二)요 반극(反極)이며, 각(角)은 삼(三)이요 태극(太極)이다”라는 부분의 의미이다.<sup>33</sup>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선(仙) 사상을 이맥은 <태백일사>에서 “천부(天符) 중일(中一)의 이상(理想)”이라고 하였다.<sup>34</sup> 천부는 하늘에 부합하는 것이며 하늘에서 받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중일은 곧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는 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완벽하게 균형잡힌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스스로 중일(中一)의 신이 있어 능히 삼이 된다는 구절로부터 일체삼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5</sup>

---

<sup>32</sup> 노자 도덕경

<sup>33</sup> 환단고기, 김은수역, 197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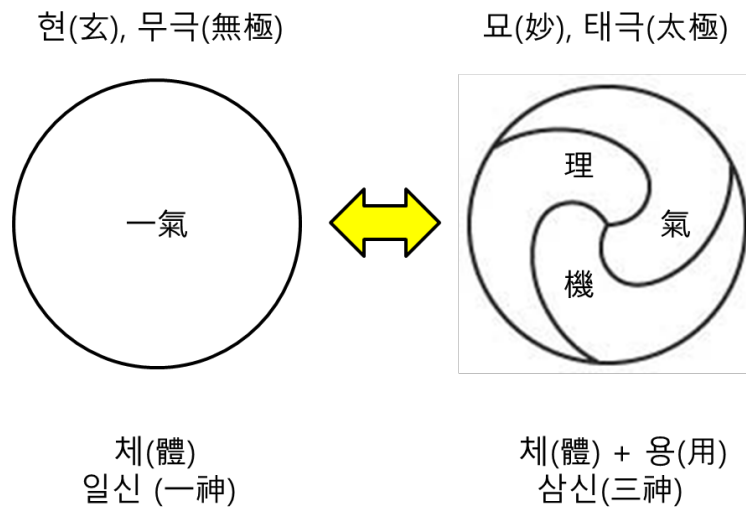
<sup>34</sup> 환단고기, 김은수역, 209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35</sup> 환단고기, 김은수역, 206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살아 움직이는 우주만물에는 기(氣)가 흐르고 있으며 만물은 일기(一氣)의 움직이는 모습일 뿐이다. 우주 만물은 고정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理)와 기(氣)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機)라고 하는 허조동체의 고동, 즉 생명체와 만물의 변화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일러 이름 붙인다면 이기동체론(理氣同體論)이라 할 것이며 그 근원은 일기(一氣)이다.

생명 활동 과정에서 신(身)은 창조되고 동시에 유지된다. 자연계에서 창조가 끊임 없는 없었다. 변화 현상 그 자체가 실상이고 따라서 창조 또한 그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변화 현상이 실상이므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여기일 뿐이다. 또한 심(心), 기(氣), 신(身)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는 작동하는 컴퓨터에서 이들 셋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세상 만물은 곧 이, 기, 기의 작용에 의해 현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물을 포함하여 모든 현상들은 일기(一氣)가 그 근원이며 그 드러남은 삼신의 작용 과정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경험[驗]에는 때[時]가 있고 경우[境]에는 공간[空]이 있으며 사람은 그 사이에 있다. 존재하는 만물은 허조동체(虛粗同體)이다. 오직 일기(一氣)일 뿐이며 오직 삼신(三神)일 뿐이다...”<sup>36</sup>



## 2.7. 성리학의 이기론과의 차이점

지금까지 살펴본 선도(仙道)의 이(理), 기(氣), 기(機)에 대한 설명을 성리학의 이기론과 비교한다면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에서는 만물의 생성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을 논의하면서 이(理)와 기

<sup>36</sup> “所驗有時所境有空人在其間庶物之有虛粗同體者惟一氣而已惟三神而已”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 역, 124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氣)를 별개의 객체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理)와 기(氣)는 상보적이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일러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라 하였고 또한 이(理)와 기(氣)는 각각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의 존재로 그 범주가 다르므로 이를 일러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이라 하였다. 이(理)와 기(氣) 자체가 우주의 시원(始源)에 있어 현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가진 것이므로 이들은 동시에 실재한다고 보며 이 때문에 주자학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 한다.<sup>2</sup>

이처럼 성리학에서는 이(理)와 기(氣)의 상호관계 내지는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과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기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태백진훈>에서 보이는 기(機)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일체삼용(一體三用)의 작동 기제를 통해 이(理)와 기(氣)가 허조동체의 모습으로 그 고동치는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기(機)인데 성리학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理)와 기(氣) 자체에 대해서도 성리학은 이들을 각기 별개의 객체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하나 선도(仙道)에서는 만물이 생겨나는 과정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 실제적 존재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재는 어디까지나 일기(一氣) 하나일 뿐이다. 일찍이 서경덕(1489-1546)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일원론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여 태허(太虛)를 기(氣)의 본체로서 일기(一氣)요, 선천(先天)이라고 하고, '일기가 음기와 양기의 이기(二氣)로 갈라져 후천(後天)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선천과 후천은 감각할 수 있는 기(氣)가 등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일기가 본체라는 설명에서는 선도의 세계관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선도에서는 음양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진(眞)과 망(妄)이라는 상대적 개념이 보이지만 음양과는 매우 다르다.<sup>38</sup>

또한 서경덕의 이론을 주리론(主理論)에 대응하여 주기론(主氣論)으로도 설명하나 선도의 이론은 주기론이나 주리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理)와 기(氣)를 어느 것이 우선한다는 관계로 파악한다기 보다는 작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서 이(理)와 기(氣)를 볼 뿐이기 때문이다. 만물의 근본은 오직 일기(一氣) 하나이다. 선 사상에서는 만물의 기원을 일기 하나로 보고 일기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용을 용(用)으로 해석하면서 그 기제를 이(理), 기(氣), 기(機)로 나누어 이해하기 때문에 이(理)와 기(氣)를 객체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이 따로 그 시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의 형태일 뿐이며 그 주체는 일기가 스스로 작동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함으

<sup>37</sup> <태허설>, 화담집, 서경덕 (1544), 역주 화담집, 황공욱, 심산, 서울 (2004)

<sup>38</sup> 방건웅, "기가 세상을 움직인다", 61~93쪽, 도서출판 예인,(2005)

로써 만물의 기원은 일기(一氣) 하나로 귀결된다. 이 점에서 창조주와 피창조물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원론적 세계관과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일원론적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만물의 생성 및 창조와 관련된 문제는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다. 복잡성과학 (Science of Complexity) 이론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직하고 자기창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일신(一神)이 계셨는데 사백력(斯白力)의 하늘에 머물렀다. 홀로 화(化)하여 신(神)이 되어 광명이 우주를 비추었고 교화(教化)하여 만물을 낳았다. . . 지극(至極)한 기운을 타고 놀면서 묘(妙)하게 합(合)하니 스스로 그러하였다. . .”<sup>39</sup>

“... 상계(上界)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니 삼신이 있었는데 곧 일상제(一上帝)이었다. . .”<sup>40</sup>

특히 조선의 성리학은 우주의 존재와 생성에 관한 문제보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심성의 문제를 이기론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理)와 기(氣)에 도덕적인 선악의 의미가 부여되었다.<sup>41</sup> 이 부분에서도 선도의 사상체계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으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체(體)와 용(用)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다. 성리학에서는 체(體)와 용(用)의 개념이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주희(1130-1200)는 체용론으로 심성론을 설명하면서 심(心)을 체와 용으로 구분하여, 발(發)하기 전을 심의 체로, 이미 발한 때를 심의 용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심의 미발(未發)을 가리키는 성(性)과 심의 이발(已發)을 가리키는 정(情) 역시 체와 용의 관계로 설명한다.<sup>42</sup>

이황(1502-1571)은 주희의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理) 자체를 체와 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대개 정의(情誼)가 없다고 운운한 것은 본연의 체(體)요, 발(發)하고 생(生)할 수 있는 것은 지묘(至妙)한 용(用)이다"라고 하여 이(理)에 정의와 조작이 없다는 것은 이(理)의 체를 말하는 것이며, 이(理)가 발동하고 생하는 것을 이(理)의 용이라고 하

<sup>39</sup> <삼성기전 상편> 환단고기, 김은수역, 21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40</sup> <태백일사> 환단고기, 김은수역, 121쪽, 가나출판사, 서울 (1985)

<sup>41</sup>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3828](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38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성론)

<sup>42</sup>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69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체용론)

였다.<sup>43</sup>

체와 용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이들이 둘이 아니라고 [不二] 하는 유가(儒家)의 설명과 달리 선가(仙家)에서는 이들이 한몸이라는 관점에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不岐]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용(用)은 그 나타나는 과정일 뿐이니 만물의 근본인 체(體)는 어디까지나 일기(一氣) 하나일 뿐으로서 변함이 없다.

### 3. 결론

현묘의 세계관에 따르면 만물은 묘(妙)의 작용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다. 만물은 삼신의 작용에 의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 존재이다. 따라서 세상을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를 실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만물의 바탕이라 할 물질적 존재를 인정하는 물심일원론이나 물심이원론과는 또 다른 정교한 설명으로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일원론적 세계관이면서도 체(體)와 용(用)의 관계를 통한 역동적 상호 작용을 만물의 실상으로 보는 관점은 우주의 근원과 만물의 존재에 더하여 그 작동 원리까지 밝힌 것으로서 이를 일러 동적(動的)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면 동양의 오래 된 가르침에서 왜 만물을 허상(虛像, illusion)이라 하며 또한 삼라만상(森羅萬象)이라 하여 실체가 없는 모습의 의미를 갖는 상(象)으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물질계 및 모든 현상계가 드러나는 생성 원리로서는 일삼기용(一三其用)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일삼기용의 실체로서는 삼일기체(三一其體) 개념을, 그리고 이것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현묘지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도의 세계관으로서 주자학의 이기론과는 또 다른 역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선(仙) 사상을 굳이 표현한다면 일기(一氣)가 이(理), 기(氣), 기(機)의 근원이므로 체(體)의 관점에서는 이기기일원론(理氣機一元論), 혹은 일기일원론(一氣一元論)이라 할 것이오, 용(用)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므로 이기기동체론(理氣機同體論)이라 할 것이다. 기(機)가 이(理)와 기(氣)의 사이에 있어 한몸으로 있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줄여서 이기동체론(理氣同體論)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理)와 기(氣)만을 다루는 성리학으로는 선(仙) 사상을 충분히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특히 기(機)의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유의할 일이다.

(2018. 9. 3. 한국학 40주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sup>43</sup>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37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무체용변(心無體用辯))